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8.06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일본,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완료(7.30)

- 일본 외무부가 공개한 협정문에 따르면, 일본은 2026~2027년 동안 총 1,370만 유로의 분담금 납부를 합의함
- 협정에는 연구비 수주액이 예상치를 80% 이상 초과할 경우 일본 정부가 협정의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포함됨
- 또한, 자동 정산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이 실제 수주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

○ 독일, EU 차기 장기예산 증액에 반대... 호라이즌 유럽 연구 예산 확대에도 제동 우려(7.30)

- EU 최대 재정 분담국인 독일이 예산 확대에 반대하면서, 연구혁신 예산도 추가 감액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됨
- EU 회원국들은 올해 말까지 차기 장기예산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집행위는 회원국 분담금 인상 없이 연간 약 58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5개 신규 자체 재원을 제안했지만,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

○ EIC, 2027년 Pathfinder·Transition 프로그램 개편 추진(8.4)

- 이번 개편은 2028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에서 EIC 예산이 약 3배 확대될 것에 대비해 평가 체계와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
- 기초·원천 단계의 혁신 기술을 지원하는 Pathfinder Open은 기존 단일 평가 방식에서 2단계 평가 방식으로 전환됨
-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EIC Transition은 컨소시엄 지원을 중단하고 단일 기관(기업)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임

○ (기타) ▲유럽 연구 지원기관, 연구비 평가에 AI 활용 확대... 다만, 최종 평가는 연구자가 맡아야(7.30) ▲집행위, 기업의 연구인프라 활용 확대 위한 접근 원칙 발표(7.29) ▲EU, 100억 유로 규모 AI 기가팩토리 구축 공모 착수